

제 5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권태환 중령(국방부 국제협력관)

주제: 한일 군사교류의 현황과 과제

일시: 2004. 11. 2 (화)

일본 방위 정책과 한일 군사관계

제가 처음 일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90년부터 시작된 군인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것으로 92년부터 94년 동안 육군 대학과정 2년을 일본에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99년에는 1년 간의 국방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간의 우호적 군사관계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 방어 기반 강화, 위기 관리 체제 정비, 자위대 해외 파병 범위 및 역할 확대등의 안보 군사 정책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한 한국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 우호적인 군사교류를 맺고 있으나 또한 역사 교과서등의 안좋은 측면도 있다. 이 둘 사이의 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 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일 것입니다. 제가 99년 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 대학원의 교수님께 여쭙 본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의 대답은 첫째로 “선언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의 수상이 하는 연설, 국회의 선언들은 모두 국내변수를 고려해서 나오는 것으로서 일본의 방위 정책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사 3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일본이 공격 받았을 때,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3가지의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방위청에서 이 법안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 방위청 내부에서도 많은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가 예상될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되는지 예상 가능하지만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될 당시 고이즈미와 김정일 간의 북일 회담으로 인해 납치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3개의 법 전체가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즉, 국내의 여론이 법을 구체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방위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일본 방위 정책의 특징은 “말등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국토는 좁고 굉장히 깎입니다. 자원은 99% 해외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국토 자체도 중요하지만 해상 교통로의 확보가 일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350톤 헬기 탑재 호위함을 보유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정비 능력을 가짐으로서 배를 중심으로 하여 해상 교통로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 대국화 보다는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말등전략은 여러가지 조건, 가변성이 있는 위협 상황에서 말의 고삐를 어느 방향으로 당기느냐 하는 것에 따른, 신속성 순발력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중심위협으로서 육군 중심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PKO등 자위대가 파병되는 경우 놀라울 정도의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국이 우려하는 것도 이러한 말등전략, 혹시 말 고삐가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일본 방위 정책의 특징은 미일 동맹의 중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카자키 연구소의 “미일동맹 프로젝트”가 현재 실질적으로 정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미국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어떻게 하면 미국과 일본이 같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연구입니다. 기존의 안보 개념인 군사의 확대 보다는 안보 자체를 중시하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위협은 기존 질서에 대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미국이 일본을 버릴 수 없도록, 일본을 버리면 큰 타격이 되므로 버릴 수 없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WIN-WIN 관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PKO활동에 있어서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ZERO SUM GAME역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독도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대일 정책에 있어서 WIN-WIN GAME과 ZERO-SUM GAME을 구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여 충돌이 있어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일본내의 주 위협으로 존재하는 북한과 중국.

: 제가 대학 생활을 했던 92년부터 96년 사이에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모두 북한 붕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의 죽음과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8년 북한이 일본 본토를 넘어선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피부에 닿는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병력 배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냉전 당시에는 구소련 침략의 경우를 대비해 미국과 일본의 정보력이 부족해 미,일이 같이 대응하지 못한 경우 일본 혼자서 본토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장시간 20일 이상 버텨야 한다는 계산아래 홋카이도 지방이 중요했습니다. 아오모리 지방이 그 방어선으로 모든 우수자원이 이 지방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수자원은 모두 서부지역, 큐슈, 오키나와 지방으로 갑니다. 즉 북방중시에서 서방중시 전략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이에는 북한의 공작선 이외에도 테러 대비, 중국의 우수한 해양력으로부터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려는 것도 보여집니다. 동시에 사단이 여단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니다만, 이는 결코 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사단의 경우 12여단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여단은 전원이 공중 기동이 가능한 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즉, 신속한 기동력을 추구함으로서 센카쿠 열도라고는 말할 수 는 없지만 섬에서의 위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